

베트남, 섬유·의류산업 전망 혐난할 듯

베트남이 2005년 1월로 WTO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 및 EU로의 섬유류 및 의류 수출 쿼터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경쟁력있는 각국 기업들로부터의 경쟁에 봉착할 것으로 보임. WTO가입과 함께 가격, 인도, 품질, 결제방법 등에 대한 경쟁요인들이 다른 회원국들간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등장할 것이고, 베트남이 현재와 같이 비회원국으로 남는 경우에는 관세율 부과의 문제가 있음.

□ 중국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시급

- 따라서 앞으로 베트남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트남 기업들은 고도의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생산해야 함
- 현재는 중국 및 인도가 쿼터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은 EU로 수출하고 있는데 일부 소수 수입자와 긴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일방적인 구매조건 요구로 애를 먹고 있음.
- 또한 EU와 미국은 세계를 일정한 기준 즉 인도시간, 상품 품질, 각종 규제준수 여부 등에 따라 동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 등 3개의 섬유·의류 수입선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어 베트남 수출자들의 어려움이 되고 있음.

□ 2004년 이후 시장여건 급변 예상

- 시장여건은 앞으로 급변할 것으로 보여 2002년의 미국시장에서와 같은 급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EU시장도 침투하기가 점점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임.

- 베트남기업들은 중국이 쿼터에 의해 제한을 받는 동안 가격경쟁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대미 수출을 확대해 왔으며, EU시장의 경우 예로서 카테고리 21(자켓)은 인기품목이었으나 일부국들의 쿼터철폐로 수출량이 급감하고 있음.
- 수년전까지 캐나다는 베트남에 대해 1.2백만 개의 셔츠 쿼터 할당을 받는 가운데 중국도 쿼터에 의한 제한을 받았으나 이의 철폐로 베트남기업의 수출이 급감하게 되었음. 그리고 최근에는 주요 시장인 일본수출 시장에서 중국이 약 80%를 차지하는 반면 베트남은 제4위 수출국으로 전락하게 됨.

□ 향후 전망

- 현재 EU는 베트남의 WTO가입 이전에 쿼터를 철폐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으므로 베트남 기업들은 가격인하 및 주문적기 처리 등을 강화해야 하며 소량·고품질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길임.
- 따라서 앞으로는 비 쿼터지역의 중상품 수요지역인 일본, 중동, 남아공, 한국, 대만, 호주 등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해야 함.
- 미국 및 EU의 경우는 저가 제품홍수를 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베트남제품의 진출여지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어떤 시장을 어떤 제품으로 공략하는 가이며 관련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함.

선임연구원 김종호(3779-6674)

E-mail: jhokim@koreaexim.go.kr

